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 성, 연령 및 학대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이 경 숙

한신대학교

박 진 아[†]

한신아동부모상담연구소

오 은 정

해수소아정신과

본 연구의 목적은 피학대 아동의 성, 연령 및 학대유형별로 정신적 표상 수준에서 가족에 대한 지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아동학대에방센터 1곳과 아동상담소 1곳에서 학대사례로 판정된 만 7-14세의 신체학대 아동 15명, 방임 아동 15명, 그리고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의 중복학대 아동 15명 등 총 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아동·청소년의 가족지각검사(Family Assessment Test)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학대 남아는 피학대 여아에 비해 부모의 적절한 제한설정에 불순응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였으며, 정서적으로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더 많이 보였다. 반면에 피학대 여아는 피학대 남아에 비해 어머니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학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조력자로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학생의 경우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가족과 관련하여 분노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가족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해결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고, 부모의 부적절한 제한에 불순응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지각 지수도 중복학대 경험 아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복학대의 심각성이 더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 학대나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슬픔과 우울과 관련된 정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피학대 아동, 정신적 표상, 가족지각검사, 학대유형

* 본 연구는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박진아,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55-27, 흥익인간오피스텔 605호

Tel : 02-325-7660, Email : pjinah1230@hanmail.net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더불어 핵가족화·이혼 및 별거 등과 같은 가정의 해체로 인한 결손가정, 그리고 재혼으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가족구성의 증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가족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동시에 과거에 비해 아동의 양육을 책임지던 가족의 기능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아동학대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및 청소년의 부적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이제는 아동학대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개입이 법적으로 명시된 이래로, 아동학대 발생률에 대한 기초적 실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수가 2003년에는 4,330건에서 2005년에는 6,659건, 그리고 2007년에는 7,32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 유형에 대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전체 아동학대 중 방임이 38.8%, 정서학대 29.8%, 신체학대 24.9%, 성학대 5.1%, 유기 1.4%로 나타났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사건이 37사례나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왔는데, 2007년에는 1개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19개의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 23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전국 각지에 43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다(복지부, 2007).

이처럼 아동학대가 급증하며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들

은 피학대 아동의 성장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연구들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아동학대는 아동의 인지발달의 지연(Wenar & Kerig, 2004), 공격성이나 비행(안동현·장화정·이영애·홍강의·이재연·이양희·조홍식·곽영숙, 2003), 우울(배주미, 2000;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4),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다중인격장애와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인지와 정서체계를 왜곡시켜 불안이나 우울 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und & Espelage, 2006). 더욱이 성장기에 부모에 의한 폭력경험을 겪는 경우 이후 성인기에 더욱 충동적이고 불안하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귀여루, 서경현, 2007). 이를 통해 볼 때, 아동학대의 후유증은 피학대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심리·사회적 적응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피학대 아동의 심리내적인 특성보다는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 정신건강관련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은 피학대 아동의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아동이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심리내적인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Waren, Oppenheim, & Emde, 1996, 이경숙·정석진·신의진, 2003, 재인용). 정신적 표상은 생애전반에 걸쳐 자신과 타인 및 세계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피학대 아동은 양육자와의 초기 학대경험으로 인해 애착대상,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 즉 자신을 가치 없고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자기비난이나 수치, 공포, 분노와 타인에

대한 적개심 등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발달시키게 된다(이경숙·정석진·신의진, 2003; Mash & Wolfe, 2001). 이러한 부정적 정신적 표상은 이후 피학대 아동의 감정적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손상시키게 되며, 높은 수준의 육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유발하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야기한다(Hazzard, 1993; Mash & Wolfe, 2001).

그러므로 피학대 아동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중재하기 위해서는 피학대 아동이 외부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적 차원이 아니라 자신과 부모, 주변 사람들과 사회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표상적 차원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소수에 불과하다. 학대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표상을 살펴본 이경숙과 동료(2003)들의 연구가 있으나 이는 학령전기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학대 유아의 자기 자신에 대한 표상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정신적 표상 수준을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피학대 아동이 학대와 관련된 본인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아동학대의 80%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실태조사 결과(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를 통해 볼 때, 피학대 아동이 학대를 하는 부모나, 학대를 방임하는 부모 및 형제, 그리고 가족관계 전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학대 아동이 이후 성인이 되어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족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

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아동학대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전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더불어 피학대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정을 꾸릴 때 부부폭력이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실제로 부부폭력가해자의 성장기 아동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재엽, 이지현과 정윤경(2007)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폭력가해자인 아버지의 약 50%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고 있었으며, 본인 자신도 과거 부모에게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성인의 데이트폭력은 본인의 부모에게 당한 학대경험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2002). 또한 아동학대의 세대간 전이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30%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ufman & Ziger, 1987).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피학대 아동이 가족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가진 채 성인이 되면 세대간 전이로 인한 아동학대의 악순환의 고리가 유지되고(Egeland, Sroufe, & Erickson, 1984; Herzbrger, 1990), 점차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학대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이후 성인이 되어서 제 2, 제 3의 피학대 아동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통해 현재 피학대 아동이 가족에 대해 어떠한 정신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정신적 표상수준에서 가족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되어온 직접적인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아니라 임상장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과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을 투사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투사적 기법을 통해 피학대 아동이 심리적으로 보다 안전하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고식 질문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기방어적 응답이 아니라 실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을 보다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투사적 측정도구 중 임상장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과 가족관계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 Wayne, Alexander, Susan과 Mary(1988)의 가족지각검사(Family Apperception Test: FAT)를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에 투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학대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Lewin과 Goldstein(1953)의 HTP(House-Tree-Person) 그림검사를 사용하여 학대당하는 아동이 그린 집과 나무 및 사람 그림의 특성을 구분하여 살펴보거나, 동적가족화그림(Kinetic FamilyDrawing: KFD)을 사용하였다(곽금주, 2002). 그러나 이상의 검사들에서는 학대아동이 선택적으로 그린 그림을 토대로 정신적 표상을 살펴보기 때문에 학대아동이 그림 그리기를 거부하거나 가족구성원 중 일부를 그리지 않을 경우, 가족에 대한 학대아동의 내면적 표상을 살펴보는데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KFD 검사는 피검자의 자발적인 언어표현보다는 그림의 특징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총체적인 지각을 살펴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으로 가족체계의 관계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가족활동, 특정 상황에서의 가족관계를 그린 21장의

그림카드를 제시하면서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수 있는 FAT 검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대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학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학대유형의 일부(김혜성·김혜련·박수경, 2006; Hund & Espelage, 2006)나 학대유형 전체를 합산한 총 학대점수를 사용하여(김미숙·박명숙, 2004; Kinard, 2001) 피학대아동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유형에 따라 학대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연구결과(Eckenrode & Laird, & Doris, 1993)가 보고되면서 학대관련 연구에서 점차 학대유형별로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Toth, Cicchetti, Macfie, Rogosch와 Maughan(2002)에 따르면 피학대 아동은 학대유형별로 부모와 자신에 대해 다르게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어머니에 대해 더 부정적이며 덜 훈육적인 것으로 지각하는 반면, 성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방임된 아동에 비해 성인의 신체적 접촉을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보다 긍정적인 존재로 지각하였다. 그러므로 피학대 아동은 학대유형에 따라 본인과 주변 및 사회에 대해 다르게 표상함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수준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¹⁾를 토대로 아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족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동학대 유형을 크게 신체적 학대, 유기를 포함한 방임, 그리고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등 두 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을 경험한 중복학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가족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복학대를 포함시키고, 성적학대를 제외하였다. 이는 학대의 특성 상 여러 가지 학대를 동시에 중복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복학대 경험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arnett, Manly, & Cicchetti, 1993), 성학대 경험 아동의 심리사회적 후유증과 그에 따르는 증상의 양상이 다른 학대 유형과 독자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기타 학대와 달리 별도로 연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피학대 아동의 아동학대 유형별로 구분하여 가족에 대한 지각을 살펴본 선행연구로는 오은정(2004)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대아동 36명을 대상으로 학대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학대 아동이 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가족에 대해 더 부정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학대유형을 신체적 학대·방임·성학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나 방임을 동시에 경험하는 중복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살펴볼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특히 전체 학대아동 중 중복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이 29.6%로 방임(31.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보건복지부, 2003)을 고려한다면, 중복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오은정(2004)의 연구에서는 피학

유기와 방임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 2000)

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유병율에 있어서는 성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나, 학대경험이 이후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Mash & Wolfe, 2001). 성학대의 경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발달과정에서 학대를 당하게 될 비율이 25%나 더 높을 수 있으며, 이후 학대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Mash & Wolfe, 2001).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피학대 아동의 연령은 학대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대가 미치는 영향에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Wenar & Kerig, 2004). 영아기의 학대는 사회적으로 주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맺지 못하게 하며, 유아기의 학대는 공격적인 행동과 역기능적 정서 조절이 증가하게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이게 하며, 아동기에는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여 또래관계를 잘 맺지 못하게 한다(Wenar & Kerig, 2004). 따라서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학대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피학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정신적 표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중복학대·방임의 세 가지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 그리고 피학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대 유형별로, 그리고 피학대 아동의

성과 연령별로 피학대 아동의 정신적 표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후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피학대 아동이 성인기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때,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왜곡되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조기발견 하여 중재·치료하고, 가족 구성원에게도 직접적인 중재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피학대 아동의 성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 2) 피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 3) 피학대 아동의 학대경험 유형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아동학대에 방센터 1곳과 서울소재 아동상담소 1곳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뒤, 시설에 6개월-1년 기간 동안 입소하여 학대사례로 선정된 만 7-14세 아동 45명(남아 25명, 여아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학대 아동의 학대유형은 Sanders와 Becker-Lausen(1995)의 아동학대 및 외상척도(Child Abuse and Trauma Scale)기준을 고려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학대유형 분류기준²⁾에 따

2) 서울소재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아동상담소에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인터뷰

라 신체학대(15명), 방임(15명), 중박학대(15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는데, 아동이 자신의 사고와 느낌에 대해 언어적 보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국웍슬러 지능검사(K-WISC-III)를 사용하여 언어성 지능(VIQ)이 경제선급인 70점 이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각 학대유형별 사례의 예시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의 평균연령은 10.5세였으며, 언어성 지능의 평균은 92점이었다.

연구도구

가족 지각검사(Family Apperception Test)

피학대 아동 및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기 위하여 Wayne, Alexander, Susan과 Mary(1988)의 FAT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임상장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유형과 가족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투사적 도구로, 일상의 가족활동이나 상황을 그림으로 묘사한 21장의 그림카드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는 21장의 그림을 순서대로 보여준 다음, 아동 및 청소년에게 ‘그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림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은 무엇인지’, ‘그림에 제시된 장면 이전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와 기관 내의 아동학대 관련 질문지인 Sanders와 Becker-Lausen(1995)의 아동학대 및 외상척도(Child Abuse and Trauma Scale)를 통해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중박학대로 구분하여 사례가 관리됨. 본 연구에서는 이미 기관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유형이 구분된 45명의 사례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하였음.

표 1.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집단	빈도(%)			
		신체학대	방임	중복학대	전체
인원		15(33.3)	15(33.3)	15(33.3)	45(100)
성별	남	10(22.2)	7(15.5)	8(17.7)	25(55.5)
	여	5(11.1)	8(17.7)	7(15.5)	20(44.4)
가족 형태	친 부모	2(13.3)	1(6.7)	3(20.0)	6(13.3)
	친부모결	4(26.7)	9(60.0)	5(33.3)	18(40.0)
	친부계모	4(26.7)	1(6.7)	3(20.0)	8(17.8)
	친모계부	1(6.7)	1(6.7)	1(6.7)	3(6.7)
	친모부결	3(20.0)	2(13.3)	2(13.3)	7(15.6)
	고 아	1(6.7)	1(6.7)	1(6.7)	3(6.7)
연령	초등저(1-3학년)	5(11.0)	5(11.0)	5(11.0)	15(33.3)
	초등고(4-6학년)	5(11.0)	5(11.0)	5(11.0)	15(33.3)
	중학생	5(11.0)	5(11.0)	5(11.0)	15(33.3)
평균연령		10.4세	10.4세	10.7세	10.5세
평균언어지능		104	87	86	92

표 2. 아동학대 유형별 사례의 예시

학대유형	사례예시
신체학대	남아(10세) 친부가 술을 먹고 몽둥이로 온몸을 때렸고, 머리를 문에 부딪치게 하여 눈에 멍자국이 있고 다리를 절뚝거림
	여아(8세) 계모가 플라스틱 막대기로 아동의 입을 쭈셔서 입안과 목이 혈었음. 샤워기 물을 뜨겁게 끓여서 아동의 몸에 물을 뿌려 배, 얼굴, 성기에 화상자국이 있음
방임	남아(11세) 친모가 술을 먹고 형과 함께 집에서 내쫓아 집근처에서 장기간 노숙을 하며 생활하였음
	여아(8세) 외조모가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데, 외조모가 일을 밤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지내며 생활하며, 외조모가 학교에 보내지 않음
중복학대 (신체+정서+방임)	남아(9세) 친부의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뿐 아니라 모욕적이고 상스러운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음
	여아(8세) 친모의 알콜중독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며, 친모가 술에 취하면 아동을 감금하고 언어적 폭력을 포함한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가함

질문을 하면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수집된 프로토콜을 토대로 다음의 7가지 요인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한다. 명백하게 드러나는 갈등상황은 가족갈등, 부부갈등, 타인갈등, 갈등의 부재와 같이 대인간 갈등이 발생하는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갈등해결 요인은 갈등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의 반응을 중심으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살펴본다(긍정적 해결, 부정적 해결). 부모가 보이는 제한설정의 적절성과 순응성은 부모가 보이는 적절한 제한에 대해 아동이 순응하는지, 불순응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보이는 부적절한 제한에 대해 아동이 순응하는지, 불순응하는지를 살펴본다. 가족관계의 질적측면은 가족관계에서 가족구성원끼리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가족체계간의 경계선 요인은 곤경, 일탈, 엄마와 아동간 제휴, 아빠와 아동간 제휴, 기타성인과 아동간 제휴, 개방체계, 폐쇄체계 등을 살펴본다. 가족간 순환적으로 나타나는 역기능적 갈등 요인은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순환적인 갈등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가족간 학대유형은 신체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약물남용 등을 살펴본다. 이상의 7가지 요인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와 정서의 톤(슬픔 및 우울, 분노심 및 적개심, 걱정 및 불안, 행복 및 만족, 기타감정)을 탐색한다. 이상의 10개 하위영역의 총 합산점수는 최종적으로 역기능적 가족지수로 채점된다. 각 하위영역별 총점은 각 하위영역 별 반응의 유무에 따라 0, 1점으로 코딩되며, 총 21개 카드에서 나타난 반응의 합산 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명백하게 드러나는 갈등의 소척도인 가족갈등의 경우 21개 카드에서 반

응이 나온 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로 산출하였으며, 명백하게 드러나는 갈등 하위영역의 점수는 하위영역별 소척도 점수들(가족갈등, 부부갈등, 타인갈등, 갈등의 부재)의 합산점수를 사용하였다.

한국 웨슬러 지능검사(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WISC-III)

피학대 아동의 언어성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금주, 박혜원, 김청택(2001)이 개발한 K-WISC-III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만 6세에서부터 16세 11개월 된 아동까지의 지능을 임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인용 지능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식, 공통성, 산수, 어휘, 이해의 하위영역을 포함한 언어성 지능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가족지각검사는 서울소재 아동학대예방센터 1곳에서 실시요강을 통한 임상적 훈련을 받은 임상심리전문가 1인에게 본 연구자와 발달심리 전공의 석사졸업생 1인이 검사실시에 관한 임상훈련을 받은 뒤 실시하였다. 총 소요 시간은 평균 약 35분 정도로 모든 내용이 녹취되었다. 녹취된 자료는 본 연구진 중 1인과 발달심리 전공의 석사졸업생 1인이 녹취된 것을 검토하면서 이루어졌다. 전체 사례의 10%인 5사례에 대한 본 연구진 중 1인과 발달심리 전공 석사졸업생 1인과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87%였으며, 평정이 불일치하는 사례는 협의 후 재평가하여 일치시킨 후 재분류하였다. 피학대 아동의 지능검사는 본 연구진 중 1인과 발달심리사 2명이 약 1시간-1시간 30분에 걸쳐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피학대 아동의 성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피학대 아동의 연령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학대 아동의 학대 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피학대 아동의 성별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 차이

피학대 아동의 성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보이는 제한설정의 적절성과 순응성 하위영역 중 적절한 제한에 대한 피학대 아동의 불순응,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 하위영역 중 어머니 스트레스 요인 소척도,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 그리고 정서 중 걱정 소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피학대 남아는 피학대 여아에 비해 부모의 적절한 제한에도 불순응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이며,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검사에 대해 더 거부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에 피학대 여아는 피학대 남아에 비해 어머니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 차이

피학대 아동의 연령을 초등학교 저학년생·고학년·생중학생으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가족관계의 질적 측면 하위영역 중 어머니/협력자 소척도,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 그리고 정서 중 분노 소척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피학대 아동 중 연령이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생 일수록 어머니에 대해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협력자로 더 많이 지각하는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피학대 중학생의 경우 피학대 초등학생에 비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가족과 관련하여 분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피학대 아동의 학대유형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 차이

피학대 아동의 학대유형별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명백하게 드러나는 갈등의 하위영역 중 가족갈등 소척도, 갈등상황의 해결 하위영역 중 부정적인 갈등해결 소척도, 부모가 보이는 제한설정의 적절성과 순응성 하위영역 중 부적절한 제한과 피학대 아동의 불순응 소척도, 정서 중 슬픔/우울의 소척도, 마지막으로 역기능적 가족지각 지수에서 피학대 아동의 학대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3. 피학대 아동의 성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 차이

하위영역	소척도	남아(n=25)	여아(n=20)	t	
명백한 갈등	가족갈등	7.84(3.34)	8.89(3.18)	1.12	
	부부갈등	1.40(1.26)	1.32(1.11)	.05	
	타인갈등	2.20(1.76)	3.42(3.25)	2.05	
갈등상황 해결	갈등부재	7.80(4.44)	6.26(3.45)	2.24	
	긍정해결	3.08(2.08)	4.11(3.14)	1.68	
	부정해결	6.96(4.39)	7.53(4.61)	.17	
	부모 제한설정의 적절성/순응성	적절제한/순응	3.32(2.30)	2.53(2.61)	1.14
적절제한/불순응		1.58(1.68)	.44(.65)	9.68**	
부적절제한/순응		2.00(1.98)	1.68(1.73)	.31	
부적절제한/불순응		1.12(1.92)	1.21(1.69)	.03	
가족관계 질적측면	협력자	어머니	1.50(1.56)	1.79(1.65)	.35
		아버지	1.40(1.12)	1.37(1.21)	.01
		형제	.80(1.22)	.47(.77)	1.03
		배우자	.60(.82)	.74(.73)	.33
	스트레스요인	어머니	5.0(2.55)	6.58(2.55)	-4.16*
		아버지	5.40(3.00)	5.16(2.32)	.09
		형제	1.04(1.17)	1.00(1.20)	.01
		배우자	.48(.65)	.63(.83)	.46
가족체계 경계선	근경	2.28(1.70)	1.84(1.30)	.87	
	일탈	1.44(1.71)	1.56(1.46)	.05	
	모자간 제휴	.00(.28)	.00(.32)	.08	
	부자간 제휴	.00(.20)	.00(.23)	.04	
	성인과 제휴	.00(.28)	.01(.32)	.08	
	개방체계	.96(1.21)	.32(.75)	3.18	
가족간 학대유형	폐쇄체계	.20(.58)	.74(2.31)	1.26	
	신체학대	1.20(1.35)	1.11(1.33)	.05	
	성학대	.12(.33)	.00(.00)	2.47	
	방임 및 유기	.28(.84)	.53(.84)	.92	
정서	약물남용	.28(.46)	.47(1.17)	.57	
	가족간 순환적 역기능 갈등	3.28(3.02)	4.05(5.12)	.39	
	슬픔/우울	2.52(2.10)	2.68(3.02)	.05	
	분노심/적개심	2.40(2.77)	1.42(1.35)	2.00	
	걱정/불안	1.32(1.07)	.47(.70)	8.97**	
검사거부	행복/만족	4.48(4.15)	3.21(3.36)	2.12	
	검사거부	3.12(4.91)	.37(1.01)	5.75**	
역기능적 가족지각지수		44.16(23.11)	46.10(21.45)	.08	

* $p < .05$, ** $p < .01$

표 4. 피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 차이

하위영역	소척도	초등저학년 (n=15)M (SD)	초등고학년 (n=15)M (SD)	중학생 (n=15)M (SD)	F	Scheffe	
명백한 갈등	가족갈등	8.40(3.33)	7.93(2.37)	8.53(4.05)	.13		
	부부갈등	1.27(.88)	1.50(1.16)	1.33(1.50)	.14		
	타인갈등	2.87(3.25)	2.86(2.32)	2.47(2.10)	.11		
	갈등부재	7.93(4.10)	7.36(3.77)	7.80(4.89)	.07		
갈등상황 해결	긍정해결	3.73(3.13)	3.57(2.87)	3.27(1.83)	.12		
	부정해결	5.53(3.70)	8.00(4.33)	8.13(5.00)	1.66		
부모 제한설정의 적절성/순응성	적절제한/순응	4.07(2.81)	2.64(2.41)	2.20(1.74)	2.55		
	적절제한/불순응	.53(.83)	1.43(1.65)	.87(1.30)	1.76		
	부적절제한/순응	1.73(1.49)	1.36(.93)	2.47(2.64)	1.36		
	부적절제한/불순응	.53(.83)	1.64(1.78)	1.33(2.38)	1.51		
가족관계 질적측면	협력자	어머니	2.29(1.77)	2.00(1.57)	.67(.90)	5.19**	1=2>3
		아버지	1.40(1.24)	1.71(1.20)	1.07(.96)	1.17	
		형제	1.00(1.41)	.71(.91)	.27(.59)	1.92	
	스트레스 요인	배우자	.87(.92)	.86(.77)	.27(.46)	3.21	
		어머니	5.00(2.98)	5.86(1.79)	6.20(2.96)	.81	
		아버지	4.93(2.55)	4.64(2.59)	6.27(2.84)	1.56	
		형제	1.33(1.29)	.71(.91)	1.00(1.25)	1.02	
		배우자	3.07(2.52)	2.64(2.63)	2.87(2.53)	.10	
가족체계 경계선	곤경	1.73(1.44)	2.14(1.29)	2.40(1.84)	.71		
	일탈	1.13(1.30)	1.31(1.65)	2.00(1.77)	1.24		
	모자간 제휴	.00(.26)	.14(.36)	.00(.26)	.32		
	부자간 제휴	.00(00)	.00(.27)	.00(.26)	.52		
	성인과 제휴	.13(.35)	.00(00)	.13(.35)	1.00		
	개방체계	.20(1.32)	.14(.53)	.67(.98)	1.01		
	폐쇄체계	1.00(2.59)	.21(.58)	.00(.26)	1.55		
가족간 학대유형	신체학대	.93(1.03)	1.21(1.63)	1.33(1.35)	.35		
	성학대	.00(00)	.00(00)	.01(.01)	.12		
	방임 및 유기	.53(1.06)	.43(.85)	.20(.56)	.60		
	약물남용	.53(1.30)	.29(.47)	.27(.46)	.46		
가족간 순환적 역기능 갈등	1.60(2.10)	2.07(2.27)	3.40(3.04)	2.07			
정서	슬픔/우울	3.27(3.26)	2.07(1.94)	2.40(2.10)	.88		
	분노심/적개심	1.20(1.21)	1.14(1.35)	3.53(3.02)	6.57**	3>1=2	
	걱정/불안	.67(1.11)	.79(.89)	1.40(.91)	2.41		
	행복/만족	6.47(4.44)	3.43(3.25)	5.20(4.25)	2.07		
검사거부	.47(1.13)	.79(1.76)	4.47(5.82)	5.67**	3>2>1		
역기능적 가족지각지수	41.87(17.88)	42.87(22.50)	50.13(25.90)	.64			

주. 비교의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집단은 1, 초등학교 고학년 집단은 2, 중학생 집단은 3으로 표시함.

** $p < .01$

표 5. 피학대 아동의 학대유형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 차이

하위영역	소척도	신체학대 (n=15)M (SD)	방임 (n=15)M (SD)	중복학대 (n=15)M (SD)	F	Scheffe	
명백한 갈등	가족갈등	7.40(3.00)	7.29(2.87)	10.13(3.29)	4.11*	3>1=2	
	부부갈등	.79(.58)	1.47(.99)	1.80(1.57)	3.00		
	타인갈등	3.36(2.56)	1.80(1.61)	3.07(3.15)	1.59		
	갈등부재	6.64(3.52)	8.93(3.88)	6.47(4.41)	2.60		
갈등상황 해결	긍정해결	3.86(2.82)	3.67(1.91)	3.07(3.08)	.36		
	부정해결	5.97(3.52)	6.93(4.46)	10.20(4.71)	3.93*	3>1=2	
부모 제한설정의 적절성/순응성	적절제한/순응	2.93(2.46)	3.53(2.77)	2.47(2.10)	.71		
	적절제한/불순응	.86(.86)	.73(1.33)	1.20(1.66)	.49		
	부적절제한/순응	1.57(1.40)	1.40(1.88)	2.60(2.10)	1.88		
	부적절제한/불순응	.47(.83)	.93(1.38)	2.07(2.46)	3.48*	3>2>1	
가족관계 질적측면	협력자	어머니	1.57(1.70)	1.79(1.76)	1.53(1.41)	.10	
		아버지	1.33(1.23)	1.36(1.22)	1.47(1.06)	1.20	
		형제	1.00(1.41)	.50(.76)	.47(.83)	.01	
		배우자	.67(.72)	.64(.74)	.67(.90)	1.09	
	스트레스 요인	어머니	5.13(2.77)	5.00(2.04)	6.87(2.75)	2.46	
		아버지	5.27(3.35)	4.57(2.56)	6.00(2.00)	1.02	
		형제	1.07(1.44)	.93(1.21)	1.07(.88)	.06	
		배우자	.67(.72)	.29(.47)	.67(.90)	1.32	
가족체계 경계선	곤경	2.00(1.36)	1.50(.85)	2.73(1.98)	2.54		
	일탈	.87(1.13)	1.57(1.91)	2.07(1.54)	2.22		
	모자간 제휴	.00(.26)	.14(.36)	.00(.25)	.32		
	부자간 제휴	.00(.00)	.00(.27)	.00(.26)	.52		
	성인과 제휴	.00(.00)	.00(.27)	.20(.41)	1.90		
	개방체계	.87(1.36)	.64(1.01)	.53(.83)	.36		
	폐쇄체계	.13(.52)	.21(.58)	.93(2.58)	1.17		
가족간 학대유형	신체학대	1.47(1.51)	.73(.88)	1.29(1.49)	1.25		
	성학대	.00(.26)	.00(.00)	.13(.35)	.99		
	방임 및 유기	.13(.35)	.29(.73)	.73(1.16)	2.16		
	약물남용	.40(.51)	.00(.27)	.60(1.30)	1.50		
가족간 순환적 역기능 갈등	1.60(2.10)	2.21(.59)	3.60(2.97)	2.91			
정서	슬픔/우울	2.07(1.83)	4.14(3.08)	1.67(1.88)	4.72*	2>1=3	
	분노심/적개심	1.73(2.12)	2.07(1.94)	2.13(2.85)	.13		
	걱정/불안	.87(.99)	1.21(1.12)	.80(.94)	.68		
	행복/만족	4.64(3.23)	6.8(4.35)	3.73(4.30)	2.31		
검사거부	2.40(4.97)	1.29(3.75)	2.07(3.17)	.29			
역기능적 가족지각지수	38.07(18.93)	38.53(22.79)	58.47(19.35)	4.87*	3>1=2		

주. 비교의 편의를 위해 신체학대 집단은 1, 방임 집단은 2, 중복학대 집단은 3으로 표시함.

* $p < .05$

과 같다.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가족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 동시에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해결방안을 더 많이 보이고, 부모의 부적절한 제한에 불순응하는 태도를 더 많이 보임을 의미한다. 특히 역기능적인 가족지각 지수도 중복학대 경험 아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정서 중에서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신체적 학대나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슬픔과 우울과 관련된 정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성별, 연령별, 학대유형별로 정신적 표상 수준에서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학대 아동의 성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피학대 남아는 피학대 여아에 비해 부모의 적절한 제한설정에도 불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학대 남아가 피학대 여아에 비해 더욱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Mash와 Wolfe(200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원래 남아는 여아에 비해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며 외향적이며 성취지향적인 성향이 많다(박진아, 2007). 이러한 기질적 특성은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을 통해 공격적이며 외부 자극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여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역기능적 패턴으로 고착된다. 따라서 피학대 남아의 경우 피학대 여아에 비해 비록 적절한 제한설정 일지라도 부모의 제재를 더 부정적으로 인식

하여 잘 따르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피학대 남아의 경우 피학대 여아에 비해 사회적으로 비행이나 폭력 등과 같은 범죄를 더 많이 보이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과거 학대경험이 있는 아버지의 경우 본인의 가정에서 부부폭력이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더 많이 보인다는 김재엽과 동료(2007)들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피학대 남아의 경우 사회적 규칙과 도덕적 판단에 맞추어 본인의 행동을 조절하고 순응하는 것에 대한 중재개입 및 예방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피학대 남아는 피학대 여아에 비해 정서적으로는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오히려 여아에 비해 내면의 심리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하며 내면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과 박진아(2004)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피학대 남아의 경우 피학대 여아와 마찬가지로 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걱정도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 상 남녀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해 여아가 내적인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고 외부적으로 발산하는 것은 주변 성인에 의해 용인되지만, 남아의 경우에는 남자답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제재를 당하거나 남아의 정서표현이 무시되는 경향성이 있다. 따라서 피학대 남아의 경우 피학대 여아에 비해 심리내적인 걱정을 외부적으로 드러내 주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해소하는 기회가 적게 되며, 그 결과 남아의 걱정은 더욱 가중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피학대 아동

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피학대 남아의 심리내면의 걱정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피학대 여아는 피학대 남아에 비해 어머니를 스트레스 요인으로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어머니와 동일한 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와 더 많이 밀착되어 있으며, 남아에 비해 어머니와 보다 친밀하고 가까운 심리적 유대 관계를 더 많이 가지는 경향(박진아, 2007)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피학대 여아는 피학대 남아에 비해 비록 학대를 하거나 방임하는 어머니일지라도 동성이라는 동질감 때문에 어머니와 유대적 관계와 심리적 교류를 더 많이 나눈다. 또한 여아의 특성 상 남아에 비해 정서나 심리와 관련된 의사소통 기술이 더 뛰어나다. 따라서 피학대 여아는 피학대 남아에 비해 어머니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나 방임을 당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해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은 피학대 여아의 경우 피학대 남아에 비해 아동학대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함을 시사한다. 즉 피학대 여아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어머니와 피학대 여아가 함께 가족상담을 받거나 부모자녀관계 치료를 받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둘째, 피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를 살펴본 결과, 피학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에 대해 자신을 보호하는 조력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경우 검사에 대한 거부적 태도를 더 많이 보이고 가족관련 분노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학대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황폐한 정신적 표상구조를 보였다는 이경숙과 동료(2003)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발달단계 상 외부적으로 부모의 직접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비록 가정 내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어머니 당사자에 의해 학대를 경험하고 있을 지라도 연령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사일과 아동의 의식주를 주로 책임지는 어머니를 본인의 조력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은 아동이 어릴수록 부모 자녀간 애정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윤혜미(1997)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학대 아동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실시 과정에서 아동의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피학대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아동이 어머니를 자신을 보호하는 조력자로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어머니와 분리·격리시키는 것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방임·학대를 하게 되는 요인이나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 지원을 통해 어머니의 문제해결훈련이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중재, 의료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원의 구축 등 다각도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바람직한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학대로 인한 아동의 부적응을 치료하는데 어머니를 조력자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어린 연령의 아동에 비

해 거부적 태도와 가족에 대한 분노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급격한 정서변화와 신체변화를 경험하는 후기 아동기에서 초기 청소년기의 사춘기 발달단계와 연결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사춘기의 아동은 발달단계 상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이며, 주변의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피학대 중학생의 경우 가족갈등과 관련된 검사자극에 갑자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중단하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일 수 있다. 또한 학대경험과 관련하여 분노를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 이는 피학대 초기 청소년들이 분노감정을 더 많이 보인다는 김혜성과 동료(2006)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학대 중학생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는 본인의 분노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아동학대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하지만 피학대 아동의 연령은 학대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학대가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아동학대에 대한 중재개입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피학대 아동의 각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학대 아동의 학대유형별로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신체학대나 방임의 단일 유형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가족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갈등에 대해 더 부정적인 해결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부모의 부적절한 제한에 더욱 불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역기능적 가족지각 지수도 가장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다른 학대유형에 비해 중복학대의 경우 학대로 인한 부정적 정신적 표상발달이

더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하여 여러 형태의 학대를 동시에 경험하는 중복학대의 경우 아동의 발달에 보다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rnett, Manly와 Cicchetti (199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중복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신체적 학대로 인한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를 동시에 받게 된다. 따라서 신체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한 가지 유형의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에 비해 더 심각한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중복학대 가해 부모의 사례를 질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동을 방임을 할 때는 전혀 양육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내버려두다가 신체적 학대를 할 때에는 대부분 예의범절을 가르치거나 가정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과도한 체벌을 자행한다. 이러한 부모의 비일관적이고 역기능적인 양육방식은 피학대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더 혼란스럽게 만들며, 이에 따라 가족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갈등해결에 더 부정적인 방식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복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은 가족에 대해서도 기타 학대 유형에 비해 역기능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후 피학대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족에 대한 긍정적 표상을 토대로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복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며, 치료적 개입 시에도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정신적 표상을 수정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임 아동의 경우, 신체학대나 중복학대 아동에 비해 정서적으로 슬픔과 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을 방임하는 부모의 대부분은 여성인 어머니이며 (Mash & Wolfe, 2001), 다른 학대 어머니에 비해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장애 및 정신과적 질병을 더 많이 보이고(Wenar & Kerig, 2004), 사회경제적으로도 빈곤계층이거나 연령이 어린 미혼모, 알콜중독인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이현기, 2005)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방임하는 어머니의 경우 이상에서 밝혀진 바처럼 심리·사회적으로 병리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자녀를 대하면서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기력한 태도를 취하거나 아동에게 냉정하거나 거부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이게 된다. 특히 방임의 경우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방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발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어머니에 의해 거부당하거나 정서적인 거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방임 아동은 높은 수준의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며, 본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들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주변 성인이나 다른 사회적 관계의 부재로 인해 더욱 깊은 슬픔과 우울감을 경험하게 됨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더욱이 방임을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의 경우 이후 본인 스스로가 또래나 주변 성인과 의 상호작용을 피하고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때문에(Mash & Wolfe, 2001)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배가된다. 이러한 추측은 방임 아동의 경우 심리·상담적 접근을 할 때, 슬픔과 외로움에 대한 정서적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방임 아동의 부정적 정서를 함께 나누고 수용해주는 친밀한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방임 부모인 어머니에게도 본인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정서적 가용성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아동의 요구와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민감성 증진 부모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횡단적 연구이므로 추후 피학대 아동의 학대유형별로 정신적 표상 수준에서 가족에 대한 지각에 어떠한 차이와 변화가 있는지를 종단연구를 통해 재검증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경우 외부적인 개입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다시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에는 재발율이 높을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 아동에 대한 추적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관련변인, 예를 들어 빈곤이나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과거 학대경험, 아동이 경험한 학대의 빈도와 지속기간, 형제자매 관계, 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과 관련된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피학대 아동의 왜곡된 정신적 표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유형을 신체적 학대·방임·중복학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성 상 각 학대유형별로 소수의 사례로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추후 보다 많은 사례수를 표집하여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성인기에 새로운 가정을 구성하는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대의 대물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관점에서 피학대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따라서 피학대 아동의 외부적 행동수준이 아니라 심리내적인 표상수준에 대한 탐색이 가능하였으며, 추후 피학대 아동과 가족에 대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들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숙, 박명숙 (2004). 아동의 학습능력 저해 요인으로서의 학대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5(5), 29-40.
- 김재엽, 이지현, 정윤경 (2007). 부부폭력가해자의 성장기아동학대 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291-312.
- 김혜성, 김혜련, 박수경 (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비교를 통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1, 207-232.
- 곽금주 (2002). 아동심리평가와 검사, 학지사
- 곽금주, 박혜원, 김청택 (2001). K-WISC-III(한국웍슬러아동지능검사). 지침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박진아 (2007). 불안장애 유아의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의 관계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중재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00). 개정아동복지법.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2003). 아동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 보건복지부 (2007), 2007년 아동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2007).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 서경현 (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15.
- 안귀여루, 서경현 (2007). 성장기 가정 내 폭력 경험이 성인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모간 폭력 관찰경험과 자신에 대한 폭력 행동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83-100.
- 안동현, 장화정, 이영애, 홍강의, 이재연, 이양희, 조홍식, 곽영숙 (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오은정 (2004). 학대받은 아동들의 가족지각에 대한 특징 연구: FAT(Family Apperception Test)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혜미 (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 95-120.
- 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경숙, 정석진, 신의진 (2003). 학령전기 학대 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 표상차이: 양

- 육자, 자기, 표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71-86.
- 이현기 (2005). 아동학대 유형별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3, 77-108.
-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부모의 이혼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우울지각: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6), 191-203.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hwwp://korea1391.org.
- Barnett, D., Manly, J. T., & Cicchetti, D. (1993). Defining child maltreatment: The interface between policy and research. In D. Cicchetti, S. L. Toth, & I. E. Sigel (Eds.), *Child abuse,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Advances in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pp.7-73). Norwood, NJ: Ablex.
- Eckenrode, J., Laird, M., & Doris, D. (1993).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53-62.
- Egeland, B., Sroufe, L.A., and Erickson, M. (1984). The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different patterns of maltrea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Abuse* 7, pp.459-469.
- Hazzard, A. (1993). Trauma-related beliefs as mediators of sexual abuse impact in adult woman survivors: A pilot study.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2, 55-69.
- Hund, A. R. & Espelage, D. L. (2006).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isordered eating among undergraduate females: Mediating influence of alexithymia and distress. *Child Abuse & Neglect*, 30, 393-407.
- Kaufman, J. & Zigler, E. (1987). "Do abused children become abusive par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2), 186-192.
- Kinard, E. (2001). Perceived and actual academic competence in maltreated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25, 33-45.
- Lewin, M. & Goldstein, N. A. (1953). The use of objectively storable House-Person Indicators to establish child ab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 667-672.
- Mash, E. J. & Wolfe, D. A. (2001). *Abnormal child psychology*. Thompson Learning.
- Sanders, B. & Becker-Lausen, E. (1995).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maltreatment: Early data on the child abuse and trauma scale. *Child Abuse and Neglect*, 19, 315-323.
- Toth, S. L., Cicchetti, D., Macfie, J., Rogosch, F. A., & Maughan, A. (2002). Narrative representation of moral-affiliative and conflictual themes and behavior problems in maltreated pre-schoole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 307-318.
- Warren, S. L., Oppenheim, D., Emde, R. N. (1996). Can emotions and themes in children's play predict behavior problem? *Journal of American Academy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4, 1331-1337.
- Wayne M. S., Alexander, J., Susan E. H., & Mary O. S. (1988). *Family Apperception Test Manual*,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Wenar, C. & Kerig, P. (200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4th). McGrawHill: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08. 04. 23
1차심사일 : 2008. 04. 30
게재확정일 : 2008. 07. 24

Mental Representation for Family in Abused Children: Focusing on Types of Child Abuse

Kyung-Sook Lee

Hanshin University

Jin-Ah Park

Hanshin Child &
Family Counseling Center

Eun Jeong Oh

Haesu Psychia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mily perception according to abused children's sex, age, and abusive type. The subjects were 45 abused children including 15 physically abused, 15 neglected, and 15 physically and emotionally abused children from age 7 to 14. The results were that boys showed more noncompliant behaviors to their parents, more concerns and more rejective behaviors to examination. Girls perceived their mothers as stressors more than those of boys. School-aged children perceived their mothers as allies than those of adolescents. Adolescents showed more rejective behaviors to examination and more anger. Physically and emotionally abused children experienced more family conflicts and showed more negative resolutions, and more noncompliant behaviors than those of abused children. Neglected children showed more depressive mood than those of abused children.

Key words : abused children, family perception, family assessment test